

한 눈으로 보는 경제			23일
코스피지수	1482.46	↓	-83.69
코스닥지수	443.76	↓	-23.99
환율(원·달러)	1266.50	↑	+20.0

비즈 프리즘 | 우리금융 25일·신한금융 26일 주총...수장은 누구?

손·조 회장 연임, 7부능선 넘었다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DLF·채용비리 등 리스크 일부 해소 '주요주주' 국민연금·ISS 반대 변수 우리·농협銀 오늘 차기 행장 선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내정자, 손병환 NH농협은행장 내정자(왼쪽부터). 지주 회장 연임과 새 은행장 선임이 결정되는 금융사 '슈퍼 주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제공 | 신한금융·우리금융·우리은행·NH농협은행

주요 금융사의 정기 주주총회가 3월 넷째 주에 일제히 열린다. 이번 '슈퍼 주총 위크'에서는 주요 금융사 수장들이 연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과 26일 각각 진행되는 우리금융과 신한금융의 주주총회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이 결정된다.

두 회장 모두 최근 그동안 연임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던 법적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다. 손태승 회장은 대규모 손실로 금융가에 큰 파문을 일으킨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

매와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가 처분 신청을 20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이번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조용병 회장은 2015년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월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 집행 이후부터 실형을 받은 점이 임원 결격 사유로 작용한다는 신한금융의 내부규범을 적용하면 조 회장 역시 연임에 걸림돌이 없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우리금융의 2대 주주(8.82%)이자 신한

금융의 1대 주주(9.76%)인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손 회장과 조 회장의 연임 반대를 공식화한 것이다. 또한 의결권은 없지만 외국 기관투자자에 영향을 미치는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도 두 사람의 연임 반대 의견의 권고사항을 냈다.

우리금융과 신한금융 모두 국민연금을 제외하더라도 우호 지분이 많아 연임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국민연금과 ISS의 의견이 기타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편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24일 주주총회를 열고 각각 권광석 우리은행장 내정자와 손병환 NH농협은행장 내정자를 차기 행장으로 선임한다.

정정욱 기자 jiyay@donga.com

저축은행 작년 순이익 역대 최고 1조2723억...대출이자 대폭 증가

저축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이 1조272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 순이익 1조 원을 처음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이후 3년 연속 기록을 경신했다.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지난해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2723억 원으로 기존 최고치였던 2018년보다 14.8% 증가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것은 대출 확대로 이자이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2019년 총 대출은 65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대출 이자이익도 전년 대비 6.6% 증가한 4조4587억 원을 기록했다.

저축은행의 총자산과 자기자본도 늘었다. 2019년 총자산은 77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0%, 자기자본은 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6.1% 늘었다. 자산과 순이익이 늘면서 2019년 말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 14.89%로 자본적정성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정정욱 기자



세븐럭, 파라다이스 등 외국인 카지노 코로나19 방지 위해 내달 6일까지 휴장

강원랜드에 이어 대표적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브랜드인 세븐럭(사진)과 파라다이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부터 임시 휴장에 들어간다.

세븐럭을 운영하는 게이밍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 유태열)는 23일 긴급이사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과 부산 3곳의 사업장을 임시 휴장하기로 결정했다. 휴장기간은 24일 오전 6시부터 4월 6일 오전 6시까지다.

파라다이스그룹(회장 전필립)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인천, 부산, 제주 등 4곳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장을 24일부터 4월 6일 오전 6시까지 임시 휴장한다. 단, 파라다이스시티 호텔과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등은 정상 영업한다.

김재범 기자

서울백병원, 외래진료 등 운영 재개

서울백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외래진료 및 응급실, 수술실 운영을 23일부터 재개했다.

서울백병원은 8일 입원 중이던 환자가 코로나19 양성 확진을 받으면서 외래, 응급실 및 병동 일부를 폐쇄하고, 확진환자는 국가 지정병원으로 전원했다. 확진환자와 같은 병실이던 환자 2명, 같은 층 및 인접한 층의 환자, 관계된 의료진과 직원 등 250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 전원 음성임을 확인했다. 이후 추가감염자가 생기지 않아 모든 접촉자의 자가격리와 동일 집단 격리(코호트 격리)가 해제됐다.

정정욱 기자

재택·교대·분산근무...금융권 콜센터 '근무 파괴' 바람

코로나 확산 차단...좌석 칸막이 설치

콜센터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권이 재택근무, 교대근무, 분산근무 등을 활용해 확산 차단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콜센터 직원의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50명이 순차적으로 재택근무를 한다. 상황이 악화하면 재택근무를 25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재택근무지에 업무용 노트북 상담시스템과 인터넷 전화를 설치해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했다. 재택근무로 확보한 여유공간을 활용해 콜센터의 좌석 간격을 넓히고 좌석 칸막이를 97cm로 높였다. 또 NH농협은행도 콜

센터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에 가세했다.

삼성카드의 콜센터 직원의 3분의 2만 근무하는 교대근무를 실시중이다. 좌석을 교차로 배치했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을 유급휴가로 처리해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했다. 이밖에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좌석 사이 칸막이를 높인 신한은행 콜센터 모습. 사진제공 | 신한은행

등은 콜센터 대체사업장을 늘려 분산근무를 진행하고 있다.

정정욱 기자

엔지켐생명과학, 코로나19 치료제 미국 임상 추진

"클로로퀸보다 성능 뛰어나"

엔지켐생명과학(대표 손기영)은 신약물질 EC-18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의 미국 임상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도현 엔지켐생명과학 미국법인 대표는 "EC-18의 방사선에 의한 세포사멸 감소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여러 대학 연구기관들과 공동연구를 실시했다"며, "예비연구에서 세포사멸을 감소시키는데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보다 우수한 결과가 나타나 미국 현지에서 코로나19 전담 T F팀을 구성하고 미 FDA에 IND(임상시험용신약) 신청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선영 엔지켐생명과학 대진바이오텔 구소장은 "EC-18은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작용기전이 밝혀진 차세대 항바이러스 신약물질"이라며 "사이토키인 폭풍을 제어해 감염조직에 염증세포들이 모이는 것을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엔지켐생명과학은 현재 EC-18과 관련해 구강점막염과 호흡기감소증으로 임상 2상, 급성방사선증후군 적응증으로 미국 국립알러지전염병연구소(NIAID), 생화학 연구개발청(BARDA), 국방부(DOD), 우주건강중개연구소와 의료대응조직 과제를 진행해 긴급치료제 IND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대부분 확보한 상태다.

정정욱 기자 sadzoo@donga.com

경남, 대전·세종, 인천...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선정

지역 관광 생태계 구축...10억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대상지로 경상남도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로 선정했다.

지역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부산 관광기업지원센터(사진)가 처음 문을 열었고, 올해는 이들 3개 지역에 새로 개소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각각 국비 10억 원을 지원(지방비 5대5 균형조성)한다.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는 관광벤처기업 입주공간 제공, 지역관광기업 창업과 육성,



지역 전통적 관광기업 개선, 지역관광산업 지원, 관광 일자리 허브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국내의 지사와 협력해 관광기업을 발굴하고 홍보도 진행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선정된 3개 지자체와 4월 신규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들의 건강학

반복적인 콧물·코막힘 등 알레르기 비염 증상, 빠른 치료가 관건

흔히 비염이라고 하면 코감기를 동반한 급성비염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만성비염, 비후성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등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만성비염은 코 막힘이 주된 증상이며 재채기, 비루 등의 증상이 동반된 상태를 말한다. 급성 비염에 대한 치료가 완벽하지 않아 비염이 재발하며 반복될 때 나타난다.

비후성비염은 만성 비염 환자가 적절한 시일 내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염증 상태가

장기간 진행되어 콧살이 비후된 상태의 비염이다.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방법은 항히스타민제, 비충혈제거제 등 알레르기성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개선이 이뤄지지 않거나 비염 증세가 악화될 경우에는 고주파 비염 수술 등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코막힘을 동반한 만성비염 또는 비후성 비염과 같은 비염은 초기에 코감기와 증상

이 매우 비슷하여 자칫 소홀히 여기기 쉽다. 특히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약물치료가 불가하기 때문에 고주파비염수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주파비염수술은 코블레이터라는 고주파 치료 장비를 사용하여 비대해진 콧살의 점막 전체를 변성시키는 특징을 갖는 비염의 대표적인 수술적 치료법이다. 저온의 RF에너지 사용으로 콧살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통증과 출혈이 적은 특징이 있

다. 과거에 사용하던 레이저 수술법보다 재발률이 낮은 장점을 갖고 있어 많은 비염 환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다만 비염 수술은 재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통한 문진, 비강 내시경 검사, 알레르기 반응검사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종합하여 개인마다 다른 코 내부 상태와 비염 정도 및 증상, 알레르기 항원 등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윤석 강남역 연세코앤 이비인후과 원장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 교육·파장은 12면에 옮겨 실립니다.